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1호 【루게 제24524호】 주제 103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

장정남동지, 서흥찬동지, 한광상동지, 황병서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용남동지와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어린이들이 한데 어울려 보람찬 야영의 나날을 즐기며 친선의 뉴대를 도모할수 있게 그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에 따라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끝낸 즉시 지난해 11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개건공사에 진입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혁명적근인정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림으로써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야영소

의 여러곳을 잠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에 새로 정중히 모신 아이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보신 다음 국제친선소년회관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을 그대로 터친 노래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고생을 달게 여기며 투쟁하는것도 우리의 아이들과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려는데 있다고, 저 구호를 보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한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운동장의 인공잔디, 관람석의자, 물결모양의 푸른 채양이 조화를 잘 이룬다고, 모든 건축물들이 말그대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같다고 말씀하시였다.

야영생들이 동식물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수족관과 조류사, 동물박제품진렬실을 특색있게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할것이라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1각, 야영2각의 침실과 식당, 주방은 물론 편의시설들까지도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다고, 당의 의도에 맞게 아이들이 제손으로 밭도 짓고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을수 있게 조리실습실을 잘 꾸려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회관의 극장,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도서실, 국제친선실, 소년단실, 미술실, 솜씨전람실, 립체를동영화관 등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우리의 건축술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아이들의 가슴마다에 애국심

을 깊이 심어줄수 있게 김정일에국주의교양실을 꾸릴데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당의 의도가 관철되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구내에 써붙인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구호를 보시고 정말 좋다고, 저 구호는

3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었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을뿐만아니라 요소요소가 우리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향완래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뜻을 표시하여 19일 고인의 명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주가공생물약물연구소 연구사 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널리 보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디》를 베루조선통신문화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의 상세한 요지를 메히프신문 《우니다드 나 세오날》 최근호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의 전문을 방글 라데슈신문 《데일리 포크》 1일부가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디》를 리비아 아랍 아와 일 출판사에서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디》를 베루조선통신문화협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 동 소 식 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무력기반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15일과 1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 하였다.

중국보도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4월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출애 들어서시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에 김정은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에 조진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인류의 심장속에 간직된 래양의 집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만민의 다함없는 정성을 받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펴려하였다.

로씨야 원동지역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협회대표단 단장 겐나지 폴리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한평생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신 그분들의 기록한 존함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 궁전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빛을 뿌릴것이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린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겐라틴에베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라몬 헤메네스 로페스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리시기 위해 기울어신 김정은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의 끝없는 총정의 세계를 깊이 느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모셔진 사진 문헌들과 정중히 보존된 렬차와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지화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고귀한 헌생의 상징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며 금수산태양궁전은 만민의 심장속에 위대한 태양의 집으로, 절세위인들의 영생의 대기념비로 소중히 간직될것이다.

벨라루시 제 2.16명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대표단 단장 따찌야나 자이제바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천지지도회수와 로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위인들의 혁명활동력사이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세기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인민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세기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인민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께서 세기 여러 나라들에서 수여해드린 수많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들에는 조선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인민의 사랑이 새겨져 있다.

선군조선의 력사에 빛나는 고귀한 한생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백두의 혁명무력이 창건된 뜻깊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도 도와 건곤이 다가오고있는 때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의 탄생 122돐을 맞이 하고있다.

뜻깊은 이날 천만군민은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수년의 그 세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우리 혁명의 총대 력사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기신 강반석어머니의 불멸의 공적을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어머니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셨습니다.》

조국의 해방은 강반석어머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날이었습니다.

일찌기 일제의 총칼밑에 락탈 당하고 신용하는 조국강도와 온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시며 강반석어머니께서는 무장투쟁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시었다. 이런 불타는 열망을 언제나 안고계시였기에 강반석어머니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형직선생님께서 유산으로 남기신 이 총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못다하신 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혁명투쟁의 길에 몰바쳐나서신 우리 수령님께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총이 필요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총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못다하신 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이렇듯 강반석어머니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주시고 성스러운 선군혁명위업 수행의 길에 나서시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개건하면서 애로와 난관이 있었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우리가 1년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야영소를 개건해놓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출애 들어서시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에 김정은령도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에 조진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주석과 김일성령도자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